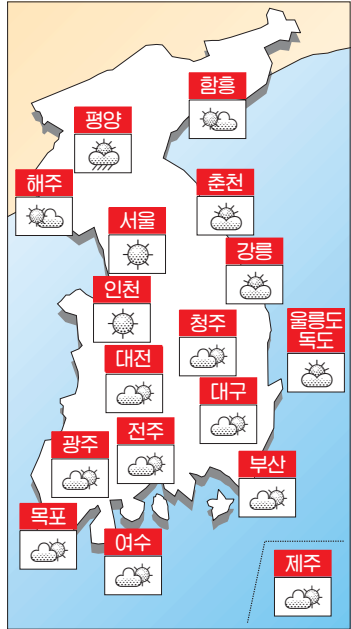


#### 주말 날들이 어때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린 뒤 차차 개겠다. (5월 20일) **남씨** (음 4월 23일)

광주	14~26℃
포항	13~22℃
여수	15~22℃
완주	13~23℃
해운대	13~26℃
고령	12~24℃
장곡	12~24℃
순천	13~24℃
홍천	12~26℃
영진	12~23℃
영광	13~23℃
전남	12~26℃
전남	11~27℃
영광	11~26℃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풍	파고 1.0~2.5m
서해남부 먼바다	서~북서풍	파고 1.5~4.0m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풍	파고 1.0~4.0m
남해서부 먼바다	서~북서풍	파고 1.5~4.0m

▲해돋이	05:25	▲해질	19:33
▲달돋이	01:10	▲달질	11:50

목포 밀물	07:32	썰물	13:10	여수 밀물	02:24	썰물	09:05
	19:44		14:54		20:52		20:52

기상내년전환: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날씨						
최저/최고	15/27	15/25	16/21	16/26	17/27	16/25

## 주말·휴일 광주·전남 '포근'

### 강풍·풍랑예비특보 오늘 오전 해제

19일 진도에 최대 89.6mm의 비를 뿌렸던 온대성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날씨가 하기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온대성 저기압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강장하에 들면서 20일 오전에는 흐리겠지만 오후에는 갹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에 내려졌던 강풍 예비특보(초속 14m)와 풍랑예비특보는 20일 오전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주말인 20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포근하겠다.

휴일인 21일은 만물(萬物)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 소만은 24절기 중 8번째로, 입하(立夏)와 망종(芒種) 사이다.

소만 무렵에는 모내기가 시작되고 보리 수확(收穫)을 하기 시작한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 냉이국은 이때 즐겨먹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이날 광주·전남은 구름이 조금 개졌지만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다빈치코드' 흥행 돌풍

### 첫날 관객 24만명 동원

#### 광주 극장가도 6,000여명 복적

전 세계적으로 4천만부가 팔린 댄 브라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다빈치코드'(수입 소니픽처스 릴리언)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개봉 첫날인 18일 광주지역 극장가는 '다빈치코드'를 보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 메가박스 1천300여명, 무등극장 1천100여명, 풀콤버스터시네마 1천400여명, 롯데시네마 1천800여명 등이 영화를 관람했다.

전국 450개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된 '다빈치코드'는 이날 하루 전국적으로 24만여명의 관객을 동원, 흥행몰이를 예고했다.

이는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3'가 개봉 첫날 세운 기록에 비해 10만명이 나 더 많은 것이다.

박스무비, 티켓파크 등 인터넷 예매율도 80%에 육박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같은 날 개봉한 '가죽의 탄생'은 2%대에 그쳤다.

광주 메가박스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현장 할인이 많아 예매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영화관을 찾는 관객 3명 중 1명은 '다빈치 코드'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 월드컵 특수 출판계도 대~한민국

출판계에도 월드컵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06 독일월드컵을 20여일 앞두고 축구 관련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여성이나 초보자들을 위해 축구 상식을 풀어놓은 책이 있는가 하면,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도 있다.

또 디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의 자서전이나 기업의 경영 원리를 유명 축구팀 감독의 전략을 통해 알아보는 자기 계발서 등이 발간됐다. 뿐 만아니라 시내 소설에서도 축구가 주재료로 등장하는 등 월드컵의 계절, '팀가이스트'(2006 독일월드컵 공인구)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는 만큼 보인다="축구바로 탈출기"(매일경제신문사 펴냄)는 '여자들이 자존심 상해 못 물어보는 축구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인 축구 규칙에서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폭넓은 축구 상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하는 2006 월드컵 가이드'(랜덤하우스 중앙 펴냄)는 대



### 개막 앞두고 축구 관련서적 출간 잇따라

표의 상세 정보는 물론 300여장의 컬러 사진으로 눈길을 끈다. 박지성·이영표·박주영·김진규·이호 등 태극전사 5인방의 풀 스토리를 실고, 조별 예선 상대국의 전략·전술을 분석했다. '2006 FIFA 월드컵 독일 공식가이드'(중앙엠엔비 펴냄)는 90개국 56개 언어로 동시 발행됐다.

'투혼'(동아일보사 펴냄)의 부제는 '축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월드컵 축구상식 1001'. 9년간 축구현장을 누빈 최원창 축구전문기자가 경험을 한 데 묶은 '월드컵 교과서'다. 현장의 생생함이 그대로 묻어온다. 살림출판사는 최근 '한국축구 발전사', '월드컵의 위대한 전설들', '월드컵의 강국들' 등 살림지식총서 시리즈 3권을 동시에 발행했다.

▲축구로 배우라="90분 리더십"(제이앤북 펴냄)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등 최고의 축구 감독에게 배우는 인제·조직 경영의 비밀을 풀어놓고 있다. 특히 박지성·이영표로 인해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감독들의 성향을 심층 분석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랜덤하우스 중앙 펴냄)는 국가대표팀 디 아드보카트 감독의 자서전. 네덜란드에서 다섯 살때 축구를 시작한 아드보카트 감독은 인

"노현정~노현정~슈우웃! 아~ 강했어요.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KBS 2006월드컵 중계팀의 서기철 아나운서와 이용수 해설위원이 직장 동료인 노현정 아나운서가 휴게실에서 커피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장면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월드컵 중계에 몰두하다 보니 세상의 모든 일상생활을 중계한다는 패러디다.

KBS가 SK텔레콤의 '현대생활백서'를 패러디한 '월드컵생활백서'가 네티즌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

## "노현정~슈우웃! 아~강했어요"

### KBS 패러디 월드컵 CF '생활백서' 대박

고 있다. KBS가 월드컵을 앞두고 제작한 월드컵중보 CF는 총 5편. 이 중 '세대공감' '워밍업' '아는 게 병' '워기 훌리' 등 4편이 '현대생활백서'를 패러디했다.

서기철·이용수씨는 '워기 훌리' 편에서 KBS의 간판 아나운서인 노현

정의 성패를 가르는 3가지 중요 가치를 개인경쟁력(Quality), 마음가짐(Mentality), 적절한 행운(Luck)으로 꼽았다.

'왜? 세계는 축구에 열광하고 미국은 야구에 열광하나'(에디터 펴냄)는 이미 문화적 상징이 돼버린 축구와 야구가 어떤 전통을 거치면서 조직·방식이 다르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시·소설 문학장르에도 축구주제 붐

▲시·소설도 축구 열풍=월드컵 바람은 문학 장르에서도 파해가기 힘들다. 시전문 계간지 '시인세계'(문학세계사 펴냄)는 최근 나온 2006년 여름호에서 '시의 문법, 축구의 문법'이라는 기획 특집을 통해 까피 라뵐·혼다 히사시 등 해외 작가 5명과 이근배·이성부 등 한국 작가 5명이 축구를 주제로 쓴 시를 실었다.

'끝내 축구단, 축구왕되다'(국민서관 펴냄)는 독일 작가가 아이들을 위해 쓴 축구 동화. 별볼일 없던 동네 축구단의 좌충우돌 성공 스토리를 담았다. 5월 둘째 주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 6위에 랭크된 '아내가 결혼했다'(문이당 펴냄)도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담긴 책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네티즌들은 지난 15일부터 KBS 홈페이지 등에서 동영상 다운로드해 미니홈피와 블로그, 유머게시판 등에 올리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500개가 넘는 블로그에 '월드컵생활백서' 동영상 상이 게재돼 있고, 한 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음'의 카페에도 50개가 넘는 동영상상이 올라와 있는 등 네티즌의 최고 관심 대상이다. ID 'Grouse'는 "정말 대박이네. 그간 KBS가 점잔 뱀는데 그걸 다 벗어버린 느낌"이라고 '월드컵생활백서'를 평가했다.

/임주형기자 jihim@kwangju.co.kr

### 80년 5월 주먹밥 나눠줬던 양동시장 상인 3명

## 시민단체協 26년만에 감사장

80년 5월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던 양동시장 상인들이 26년 만에 당시의 선행에 대한 감사인사를 받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안희숙)는 지난 18일 옛 전남도청 본관 앞에서 '그때 그 사람들-감사장 수여식'을 갖고 이영애(여·63)씨와 김정애(여·62)씨, 엄결실(여·72)씨 등 3명에게 감사장과 농협 상품권(10만원)을 수여했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양동시장 노점상이었던 이씨 등은 하루에 2천 원씩 각출해 쌀을 구입, 떡과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눠줬다. 이씨 등은 또 전남대 병원에 리어카로 주먹밥을 날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시민협 임승호 정책부장은 "이씨 등은 5·18광주민중항쟁의 대동진신을 더욱 빛나게 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 물어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

했다.

시민협은 지난해부터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 '그때 그 사람들-감사장 수여식'을 갖고, 시민군과 학생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18당시 시민군을 치료해 준 의사와 간호사를 기리기 위해 '광주시 의사회'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편 광주일보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의 연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주먹밥을 만드는 두 여인' 사진의 주인공인 감사장(여·당시 40)씨와 하문순(여·당시 32)씨를 26년만에 찾아 19일자 6면에 보도했다.

광주일보는 5·18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칼에 맞서 '하루된 광주'를 상징한 광주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재래시장을 샅샅이 뒤져 대인시장을 찾았다.

/임주형기자 jihim@kwangju.co.kr

### 나원침 (6833) 김창두



### 무면허로 21명 성형수술

#### 광주지검, 50대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 고필형 검사는 19일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법 제 21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해 11월 광주 삼무지구 S성형외과를 개설한 뒤 지금까지 유모(여·38)씨 등 21명의 환자들에게 콧대 높이기, 보조계·쌍꺼풀 성형 등을 시술해 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수술 건당 50만~300만원씩을 받고 시술을 했으며, 콧대 높이기 수술을 받은 유씨와 보조계 성형 수술을 받은 김모(여·36)씨 등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 17명 중 16명 부작용과 수술 후유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 전국 금은방 상습털이

#### 구례경찰, 2명 구속영장

구례 경찰은 19일 금은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5시에 광주시 북구 신안동 J금은방에서 손님인 양 행세하며 물건을 샅샅이 훔친 주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 3냥(30돈), 시가 260만원 상당의 체인목걸이와 팔찌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와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서포터즈 '광주진입' 글에 팬들 발끈

#### 쌍다림 FC 서울의 공식 서포터즈인 '수호신'의 한 회원이 20일 서울에

서 열리는 광주 삼무전을 겨냥, 구단 홈페이지에 '광주 진입 계약료 전액 환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광주진입' 글에 발끈

○ID '자이 사는놈'은 지난 18일 'FC 서울'의 공식 홈페이지(www.fcseoul.com)에 '서울 전사들이 또다시 광주를 진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

○광주 삼무 서포터즈 회원 및 축구 관계자들은 'FC서울'의 홈페이지에 100여개의 항의 글을 올렸고, 구단 측은 이날 밤 10시에 문제의 글을 삭제.

○"광주 삼무 서포터즈" 이준호 회장은 "축구의 승부를 떠나 광주시민들의 아픔인 5·18을 비하하는 내용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면서 "서울 상암경기장에 항의성 현수막을 내걸고 구단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겠다"고 표명.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